

### 33 일 봉헌 17 일

#### 제 2 장 제 5 일, 교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그분께 다시 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며 그 안에서 기뻐한다. 반면 교만은 죄의 시작이며 죄의 뿌리이고, 교만은 모든 덕을 일시에 잃게 한다. 교만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는"(야고 4,6)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놓는다.

**1. 시작 기도 :**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천천히 성호를 긋고 잠시 자신을 반성한 뒤 성령송가를 바치거나 성령에 관한 성가를 부른다.

#### 성령송가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주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에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우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주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 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 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2. 독서:** 아래 내용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거나 정독하면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에서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잠잠히 생각해 본다.

### 1) 루가 복음 18, 9-14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십분의 일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잘 들어라.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 2) 참된 신심 2-7 항

2. 마리아는 일생 동안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는 그분을 "Alma Mater-숨은 은밀한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마리아는 지극한 겸손으로 항상 사람들 가운데 숨어 살기를 원하였고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오직 하느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였기 때문이다.

3.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리아의 청을 허락하셔서 마리아의 잉태와 탄생, 마리아의 삶과 모든 신비를 그리고 마리아의 승천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숨기셨다. 마리아의 부모들조차도 마리아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저 여인은 누구인가?" (아가 3, 6; 8, 5 참조)라며 서로 물었다. 왜냐하면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천사들에게까지 마리아의 신비를 숨기셨기 때문이며 설령 어떤 부분은 계시해 주셨다 해도 그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마리아의 모든 신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4. 성부께서는 마리아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으면서도 마리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드러나는 기적을 행하지 않음도 허락하셨다. 성자께서도 마리아에게 당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셨지만, 마리아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마리아가 비록 당신의 배필이시지만 사도들과 복음 사가들이 마리아에 대하여 별로 말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한 마리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허락하셨다.

5.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가장 완전한 걸작품으로서 하느님만이 마리아를 완전히 알고 소유하는 권리를 유보하셨다. 마리아는 하느님 아들의 훌륭한 어머니이시고 하느님께서도 마리아를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보다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지만, 마리아의 겸손을 도와주기 위해 마리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느 여자들처럼 "여자, 여인"(요한 2, 4; 19. 26)이라고 불리며 겸허하게 숨은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 마리아는 "봉해진 우물"(아가 4, 12)이며 성령의 충실한 배필이므로 마리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지성소요 안식처로서 하느님께서도 마리아 안에 계시는 것이 케루빔과 세라핌 위에 당신 어좌나 이 우주의 그 어느 훌륭한 곳보다도 더 마음에 들어 하신다. 아무리 순결한 조물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

6. 나는 성인들과 함께 이렇게 말한다. "마리아는 새로운 아담의 지상 낙원이시다. 그 안에서 성자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이 되셨다." 라고. 마리아는 하느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로서 그곳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무한한 보화로 가득 차 있다. 하느님의 웅대함인 마리아 안에 하느님은 당신의 품안에 품듯이 독생 성자를 숨기셨고 그 외아들 안에 또한 가장 존귀한 모든 것을 감추셨다. 오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이 놀라운 인간 안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에 찬 일을 많이 하셨는가! 깊은 겸손을 지닌 마리아조차도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루가 1,49) 라고 찬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것처럼 훌륭하고 감추어진 일들을 알지 못했으며 설사 누가 알려 주어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7. 수많은 성인들이 신성한 하느님의 도성(都城)인 이 마리아를 찬미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면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욱 신기한 힘을 느끼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그들은 하느님의 어조에까지 다다른 마리아의 공덕의 높이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고, 이 세상보다 더 넓게 펼쳐진 마리아의 사랑의 넓이는 측량할 수 없으며, 심지어 하느님에게도 미칠 수 있는 마리아의 능력의 크기는 짐작조차 할 수 없고, 마리아의 겸손과 성덕의 은총의

깊이는 너무나 깊어서 젖 수도 없다고 말한다. 오, 알 수 없는 높이여! 오 이루 말할 수 없는  
넓이여! 오, 무한한 위대함이여! 오, 헤아릴 수 없는 심연이여!

### 3) 준주성범 제 3 권 8 장 1-3 항

1. 제자의 말 :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창세 18,27). 내가 과연 먼지보다  
재보다 더 크게 나를 헤아리게 되면 주님은 즉시 나의 이런 생각의 잘못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내  
죄악도 이 사실의 참된 증거가 되어 나서리니 그러면 나는 반대할 도리가 없겠나이다. 내가 나  
자신을 천히 보고 허무한 것같이 보며 또 나를 도무지 위하는 마음이 없고 나를 먼지와 같이 보아야  
비로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은총을 내려 주실 것이요, 내 마음에 광명을 내려 주실  
것이옵니다. 그 때는 나를 위하는 생각이 비록 묻혀 버릴 것이옵니다. 그런 지위에 있게  
되면 주께서는 내게 현재의 나의 처지가 어떠하며 전에는 어떠하였으며 어떤 처지에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리니, 즉시 용기를 얻고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겠나이다. 나는 나  
자신의 무게로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는데도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자애롭게도 주께서  
나를 품어 주시는 것은 과연 이상한 일이 아니옵니까?

2. 이는 당신 사랑의 작용이오니, 내가 잘한 것이 없어도 나를 찾아 주시는 것이나. 여러 가지  
긴급한 사정에 돌보아 주시는 것이나. 큰 위험에서 나를 보호해주시는 것이나 또 실상 말하자면 그  
무수한 재앙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과연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옵니까? 내가 나를  
잘못 사랑함으로 나를 잃었더니, 내가 당신 하나만 찾고 당신만 순전히 사랑함으로 나도 얻고  
당신도 겸하여 얻었사오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허무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나이다. 오! 극히 선하신 분이여, 당신이 내게 하시는 일은 다 나의 공로를 초월하는  
것이오며, 당신은 내가 감히 바라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 것을 주시나이다.

3. 내 주여, 찬미를 받으소서. 나는 무슨 은혜를 받기에 부당하오나 당신은 고상하시고 한없이  
착하시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을 싫다고 멀리 달아나는  
사람들도 돌보아주시니 당신은 찬미를 받으심이 마땅하도소이다. 우리를 돌이켜 당신께로 향하게  
하시고, 은혜를 갚고 겸손하고 신심 있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은 당신이요, 우리의 힘과 용맹도  
당신 밖에 없나이다.

**3. 묵상(15-30 분) :**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비추어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 묵상 전 기도

죄에 물들이 없으신 성령의 짝이시요,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저의 어머니시요, 주인이시며, 모후이신 마리아님,

저를 온전히 당신께 드리며

또 당신을 통해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여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부터 제게 영광과 힘을 간구하여 주시고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알고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저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당신으로 채워주시고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알게 하소서.

아멘.

**4. 생활 실천 :** 묵상 중에 느낀 내적인 움직임이나 깨달은 점을 노트에 기록하고 그 내용에 따라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한다.

**5. 묵주기도 :** 고통의 신비를 바치면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신 마리아의 겸손을 닮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한다. (묵주기도는 다른 시간에 바쳐도 된다).

**6. 마침 기도 :** 묵상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바다의 별** 기도를 바친다.

## 바다의 별

바다의 별이요,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평생 동정이시며, 하늘의 문이시여, 하례하나이다.  
죄인의 사슬 풀고, 눈먼 이에게 빛 주시며  
악을 멀리 쫓고, 선을 구해주소서.  
기묘하신 동정녀요, 가장 양선하신 이여  
저희를 죄에서 구해, 착하고 조찰케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께 찬양과  
그리스도께 영광과  
삼위이신 성령께 같은 존경 있어지이다.

## 성모 호칭기도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 자비를 베푸소서.
- (다음은 같은 후렴)
-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

천주 성령님, ●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

○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 천주의 성모님, ●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

그리스도의 어머니 ●

천상 은총의 어머니 ●

티없으신 어머니 ●

지극히 깨끗하신 어머니 ●

순결하신 어머니 ●

흠없으신 어머니 ●

○ 사랑하올 어머니 ●

탄복하올 어머니 ●

슬기로우신 어머니 ●

창조주의 어머니 ●

구세주의 어머니 ●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 ●

공경하올 동정녀 ●

찬송하올 동정녀 ●

튼튼한 힘이신 동정녀 ●

인자하신 동정녀 ●

성실하신 동정녀 ●  
정의의 거울 ●  
상지의 옥좌  
즐거움의 샘 ●  
신비로운 그릇 ●  
존경하올 그릇 ●  
지극한 사랑의 그릇 ●  
신비로운 장미 ●  
다윗의 망대 ●  
상아 탑 ●  
황금 궁전 ●  
계약의 궤 ●  
하늘의 문 ●  
셋별 ●  
병자의 나음 ●  
죄인의 피신처 ●  
근심하는 이의 위안 ●  
신자들의 도움 ●  
천사의 모후 ●  
성조의 모후 ●  
예언자의 모후 ●  
사도의 모후 ●  
순교자의 모후 ●

증거자의 모후 ●

동정녀의 모후 ●

모든 성인의 모후 ●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 ●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모후 ●

묵주기도의 모후 ●

가정의 모후 ●

평화의 모후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 이 세상의 슬픔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